

지역 소식통

완주군, 귀농귀촌인
농촌생활기술 교육 실시

완주군은 최근 5일간 귀농귀촌지원센터 주관으로 용접, 목공, 전기, 배관 등 다양한 기술을 실습해보면서 실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농촌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귀농귀촌인과 주민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친분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군은 농업경영기초실무, 귀산촌과 산림과수의 이해, 농촌생활 기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은 “농촌생활기술 교육은 농촌생활 능력을 높이고, 지역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3일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인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학습지원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교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연령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희망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집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등을 지참해 시가족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5~6월 신청자는 7월, 7~8월 신청자는 9월, 9월 신청자는 10월에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지급한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학업과 진로탐색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속히”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기자회견·정기총회 통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강조
강병진 위원장 “관할 지정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 더 큰 혼란 야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 위원 50여명이 지난 14일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중양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을 조속하게 관할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만경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결정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2022년 12월 중분위에 상정된 이후 작년 1번의 현장방문과 5번의 심의회를 마쳤고 2024년 1번의 심의까지 총 6번의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의 위치, 내륙과의 연결관계, 해양접근성에 따라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기준이 확정되어 경계가 확실해졌고,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군산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으로 관

할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었으므로, 중분위에서 하루빨리 관할결정하는 것만이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시군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여 중분위의 조속한 관할결정을 요청했다.

또한 군산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중분위의 결정을 미루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10조 원 규모의 기업 유치 성사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관할 결정할 때는 조속 결정을 촉구했으면서, 지금은 동서도로 관할결정을 막기 위해 중분위 결정을 중단시키려는 군산시의 내로남불 행태를 규탄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새만금권 통합은 관할권 결정 전에 논의될 수 없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시민연대 정기총회에서

강병진 위원장의 ‘새만금 관할권 확보의 중요성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최근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등이 포함된 새만금 관할권 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 사례와 문제점을 소개하며 통합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하며 다시한번 김제 관할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새만금 지역의 3개 시군이 관할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분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관할 결정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관할이 지정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는 새만금권 지역 주민들의 더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것이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지자체 간 신뢰와 주민의 공감대 형성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 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 대회 개최로 상인들 ‘함박웃음’

김제시,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남여하키대회 등 전국축구 대회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전국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았다.

지난 14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개막해 12일까지 10일간 김제시 하키 전용구장에서 개최되었던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남여하키대회’ 및 제24회 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대회’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김제 시민운동장 및 김제축구전용구장에서 진행된 ‘제7회 대한민국축구협회장기 시·도대항 전국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남여하키대회’ 및 제24회 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대회’에는 총 41개팀이 참가했으며, 출전 선수들은 내리찍는 햇볕에도 불구하고 하키장을 누비며 뜨거운 열정과 함성으로 대회장을 가득 채웠다.

또 ‘제7회 대한민국 축구협회장기

시·도대항 전국축구대회’에는 대회 개최 역대 최다팀이 참가해 발동차기, 안축차기 등 화려한 기술과 함께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대회를 즐겼다.

이번 2개 대회를 통해 총 3,000여명에 이르는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김제를 방문하였고, 덕분에 음식점, 숙박업 등의 수요 증가로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장배 챔피언십 출렁기대회’와 ‘제36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태권도대회’, ‘제3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로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자 역할을 톡톡히 해낼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5월부터 확대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확대 운영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기존 6대 설치에 이어 올해 9대를 추가 설치하고 지난 13일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김제역광장, 시민운동장, 보건소, 금산면, 금구면, 백구면, 광활면 행정복지센터 7개소이며 캔 무

인회수기 설치장소는 요촌동, 김산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다.

무인회수기 이용방법은 수퍼핀(주)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무인회수기 화면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투입구가 열린다면 라벨이 제거된 투명페트병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에, 캔은 캔무인회수기에 투입하면 된다. 투입된 재활용품은 1개 당 10포인트(10원)씩 가입된 계정으로 적립되며, 누적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수퍼핀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동권리영화제’ 완주에서 열린다

아동권리증진사업 공모 선정
10월 중 영화제 개최 예정

전국 102개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하는 아동권리영화제가 완주에서 열린다.

지난 14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2024년 아동권리증진사업 공모 사업에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누리다’ 아동권리영화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102개 아동친화도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완주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아동친화도시 대표사업으로 아동권리영화제를 추진해왔다. 지난 2023년까지 총 115편의 영화가 출품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완주군은 규모를 확대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교류형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아동·전문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오는 6월부터 전국 지



완주군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2024년 아동권리증진사업 공모사업에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누리다’ 아동권리영화제 사업이 선정됐다.

자체 대상으로 아동권리영화제를 공모한다. 오는 9월에는 영화제 출품영화를 선정해 10월 중에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영화제의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돼 있다”며 “전국 아동친화도시를 대

표해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성공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제3호 요촌동 수각마을 치매안심마을 현판 전달식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4일 제3호 요촌동 수각마을에 치매안심마을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4월 30일 요촌동 실버타운 치매안심마을 현판 제막 행사에 이어 이날, 요촌동 수각마을에 치매안심마을 현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주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이다. 김제시는 2019년 신흥동 성리, 성서 마을을 시작으로, 2020년 김산동 주공 1단지 아파트에 이어 올해 요촌동 수각, 실버타운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다. 현판 전달식 진



행 후에는 마을 주민에게 치매안심마을 전반적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검사(인지 선별검사, 주관적 기억 감퇴 평가 설문,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를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